

Reimagining the Crisis of Teachers' Rights through Dong Zhongshu's Theory of Tian-ren he-yi: A Search for Harmony between Legal Deterrence and Moral Autonomy

Jiyeon Han^{*}
Hongi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ity” (Tian-ren he-yi)-a cornerstone of Dong Zhongshu’s philosophy that internalized Legalist governance within a Confucian framework-through the lens of modern publicness. By doing so, it seeks to propose a multifaceted resolution to the contemporary crisis of teachers’ rights, grounded in both institutional respect for protective legislation and a spontaneous, moral reverence for educators as ethical exemplars.

[Contents] Current discourse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re predominantly centered on legal reforms and external coercion. However, such approaches are inherently limited; they enforce heteronomous compliance while failing to foster the subjective moral autonomy essential for a functioning educational community. Dong Zhongshu’s thought offers a critical intervention in this regard. While it justifies institutional deterrence against rights violations by incorporating Legalist principles of punishment, it simultaneously addresses the vacuum of moral autonomy through “Virtue-Centric Governance” (Dezhi) and “Ritual” (Li) rooted in the cosmic authority of Heaven (Tian). This study highlights how the expertise of care, embodied by teachers, can serve as a moral compass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itutional regulation and ethical practice.

[Conclusions] Projecting Dong’s insights onto the modern educational landscape, this research proposes a tripartite paradigm for recovery: Re-envisioning legal enforcement as a manifestation of public justice to secure social legitimacy for teachers’ rights legislation. Establishing teachers as ethical paradigms who embody the “professionalism of care,” thereby eliciting spontaneous reverence (weijing) from students and parents. Cultivating an environment of mutual courtesy to realize a modern “harmony of governance and education” (zheng-jiao) where law and ethics act as complementary forces. Ultimately, this study advocates for a new educational paradigm that harmonizes heteronomous legal compliance with the autonomous cultivation of virtue.

[Keywords] Dong Zhongshu, Unity of Heaven and Humanity, Publicness, Teachers’ Rights, Respect, Reverence

^{*} **Corresponding author** Jiyeon Han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E-mail : hanjiyeon7@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동중서의 천인합일론에 비추어 본 현대 교권 문제 해결 방안

한지윤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가적 통치 원리를 유교적 체계 내에 내재화한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을 현대의 공공성 차원에서 재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대 교권 문제의 다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현대의 교권 보호 논의는 외부적 강제력에 의존한 제도 개선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는 타율적 법 준수를 강제할 뿐 교육 현장의 주체적 도덕성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동중서의 사상은 법가적 형벌 원리를 수용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적 억제력을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천(天)에 근거한 예(禮)와 덕치(德治)를 통해 도덕적 자율성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 본 연구는 동중서의 사유를 현대 교육 현장에 투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회복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강제력을 공공적 정의의 실현으로 재해석하여 교권 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확보한다. 둘째, 돌봄의 전문성을 체현한 교사를 윤리적 귀감으로 설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외경(畏敬)을 이끌어낸다. 셋째, 상호 예우가 전제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제도와 윤리가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정교(政敎) 조화를 실현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중서의 천인합일론을 바탕으로 법치에 기반한 타율적 준수와 인격적 존경에 기초한 자율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권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동중서, 천인합일, 공공성, 교권, 존중, 존경

I. 서론

현대 한국 사회의 교권 침해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이돈희는 교권을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권위를 인정받고 부당한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할 권리(Lee, 1991: 23)로 정의했으나, 현실은 이와 괴리되어 있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학생들조차 교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을 체감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5: 1-2).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계와 현장은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확보 및 사법 절차 개선 등 법적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Kim et al., 2016: 1; Jeon, 2024: 24). 이는 교육의 내재적 도덕률과 윤리적 기강이 붕괴된 자리에 외재적 규제 체계인 법치의 그물을 촘촘히 치는 과정과 일치한다. 국가 권력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원의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의 명분을 제도적으로 재구축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왔다.

그러나 법적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교사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외경(畏敬)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피할 뿐, 교육 공동체 내의 도덕적 자율성이 고갈된다면 교권의 본질적 회복은 요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교권을 교육 외재적인 법적 절차와 사법적 변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당대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그 구조적 특징과 내포된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강제와 도덕적 자율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법가 사상을 유교적 질서 내로 포섭한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론에 주목한다. 동중서는 천(天)의 법도에 근거한 형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禮)에 기반한 덕교(德敎)를 통해 인간의 자율적 본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본고는 동중서의 사유를 현대 민주주의의 공공성 담론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법적 정당성 확보와 도덕적 교육 환경 조성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교권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동중서의 법가 도입과 유가 계승

1. 법가와 동중서의 천인합일론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거치며 해체된 전통적 공동체의 규범을 복구하기 위해 동중서는 천(天)의 권위를 형이상학적 자연법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주술적 권위가 상실된 자리에 천도(天道)의 보편적 법칙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통치자의 사적인 의지가 아닌 보편적 공공성(公共性)의 차원으로 격상시켰다(*Chunqiu Fanlu*, Chapter 21).¹⁾ 동중서의 천도론은 불변의 보편 원칙인 상도(常道)와 상황적 예외성을 인정하는 변도(變道)를 포섭하며, 이를 통해 정교(政敎) 일치의 원리 아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Chunqiu Fanlu*, Chapter 78).²⁾ 이러한 천의 규범성은 현대 사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단순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아닌 교육 공동체의 질서를 수립하는 공공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Chunqiu Fanlu*, Chapter 3).³⁾

동중서 사상의 독창성은 유가적 덕치에 법가적 형벌 원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데 있다. 그는 천(天)을 처벌과 보상의 명분적 근거로 삼아, 통치자(교사)와 피통치자(학생)의 관계를 음양(陰陽)의 원리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양(陽)의 책무와 권위 차원에서 군주(교사)는 천의 명령을 받들어 질서를 확립하는 주체로서 양에 배속되며, 천의 의지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한 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Chunqiu Fanlu*, Chapter 55).⁴⁾ 음(陰)의 순응과 덕목에서 대중(학생)은 음에 배속되어 천의 의지를 자각하기 어려운 존재로 설정되며, 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해 통치자의 규범적 지도에 순응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으로 규정된다(*Chunqiu Fanlu*, Chapter 48).⁵⁾ 동중서는 천(天)을 마법처럼 만들어 초월적이고 신성하게 만든다(Bai, 2013: 181). 이로 인해 동중서가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듯이 복종을 요구한 것은 천리에 의탁하여 백성들의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Lee, 2014: 150-151). 이러한 위계적 구분은 현대 교권 문제에 있어, 교사를 교육 활동의 주도적 권위를 지닌 양의 주체로 설정하고, 학생의 도덕적 방종을 억제하는 법적 강제성이 천도(공공적 자연법)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임을 논증하는 근거가 된다(*Chunqiu Fanlu*, Chapter 41).⁶⁾ 동중서는 군주가 천의 명령을 받들어서 표명하는 천(天)의 의지

1) 『春秋繁露』『考功名·第21』, “考絀陟, 計事除廢, 有益者謂之公, 名責實, 不得虛言, 有功者賞, 有罪者罰, 功盛者賞顯, 罪多者罰重.”

2) 『春秋繁露』『天地之行·第78』, “天有和有德, 有平有威, 有相受之意, 有爲政之理, 不可不審也.”

3) 『春秋繁露』『竹林·第3』, “春秋之道, 固有常有變, 變用於變, 常用於常各止其科, 非相妨也.”

4) 『春秋繁露』『四時之副·第55』, “天人所同有也, 慶爲春賞爲夏罰爲秋刑爲冬, 慶賞罰刑之不可不具也, ... 四政者不可以易處也, 猶四時不可易處也.”

5) 『春秋繁露』『陰陽終始·第48』, “是於天凡在陰位者, 皆惡亂善不得主名, 天之道也.”

를 규범으로 삼으면서 음과 양, 형(刑)과 덕(德)을 짝지우고 양을 중히 하고 음을 가벼이 여긴다(No, Jeong trans., 1997: 36).

동중서의 사유는 공맹(孔孟)의 원시 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법가적 유가의 성격을 띤다(Lunyu, Yang Huo).⁷⁾ 공자가 천의 인격적·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논의를 최소화한 반면, 동중서는 천을 주재천(主宰天)으로 신격화하고 음양론과 재이론(災異論)을 통해 통치 권력을 제도화하였다. 봉건주의적 윤리관을 확립한 동중서의 사유에서 사회 실현에 대한 군주의 역할 강조는 윤리적, 정치적 의미에서 당시 한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한 사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Kim, 2017: 294). 이는 한(漢)이라는 대제국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에 공공성으로 부응한 결과이다(Chunqiu Fanlu, Chapter 7).⁸⁾ 왕권견제에 대한 동중서의 독특한 입장은 그가 천명론에 재(災)라는 긴장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Park, 2009: 19).

그러나 이러한 변용 속에서도 공자의 천(天)에 대한 경외심과 북극성의 덕치 비유를 계승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자의적인 폭압이 아닌 보편적 도(道)와 일치해야 함을 역설하였다(Lunyu, Ji Shi; Lunyu, Weizheng).⁹⁾ 즉 법가적 수단(형벌)을 쓰되 그 목적은 유가적 이상(덕치)에 두는 덕주형보(德主刑輔)의 초기 틀을 제시한 것이다(Chunqiu Fanlu, Chapter 31).¹⁰⁾

동중서 사상의 핵심적 기제인 재이론은 교권의 권위가 무소불위의 사적 권력이 아님을 시사한다. 천은 통치자의 실책에 대해 이상 현상(경고)과 사변(징벌)을 통해 개입한다(Chunqiu Fanlu, Chapter 35).¹¹⁾ 이는 통치권자가 천도의 공공성을 위배할 경우 그 권위가 박탈될 수 있음을 뜻하는 자연법적 견제이다(Chunqiu Fanlu, Chapter 27).¹²⁾

현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 회복 역시 사적인 지배력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동중서의 논리를 빌려오면, 교권은 교육이라는 공공적 성업(聖業)을 완수하기 위해 천(공공성)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전제주의적 복종의 틀이 아닌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 체계 위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즉 학생은 과거의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피지배자가 아니

6) 『春秋繁露』 「爲人者天·第41」, “此皆天之近陽而遠陰, 天固有此然而無所之如其身而已矣, 人主立於生殺之位, 與天共持變化之勢, 物莫不應天化.”

7) 『論語』 「陽貨」,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8) 『春秋繁露』 「減國上·第7」, “別嫌疑之行, 以明正世之義, 采摭託意, 以矯失禮, 善無小而不可舉, 惡無小而不可去, 以純其美. 別賢不肯以明其尊, 親近以來遠, 因其國而容天下, 名倫等物, 不失其理, 公心以是非, 賞善誅惡而王澤洽, 始於除患, 正一而萬物備.”

9) 『論語』 「季氏」,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論語』 「爲政」,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眾星共之.”

10) 『春秋繁露』 「身之養重於義·第31」, “故受命而海內順之, 猶衆星之共北辰流水之宗, 滄海也.”

11) 『春秋繁露』 「深察名號·第35」, “士者, 事也. 民者, 瞑也. 士不及化, 可使守事從上而已.”

12) 『春秋繁露』 「度制·第27」, “國家之失乃始萌芽, 而天出災害以譴告之, 譴告之而不知變, 乃見怪異以驚駭之.”

라 교실 안의 공적 질서를 확립하는 교사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약속인 교권 관련 법과 제도를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주체적 책임으로 대응하는 민주적 시민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교사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공공 질서를 확립하되, 능동적인 주체로서 도덕적 귀감이 되어 천도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상보적 책임론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동중서의 천인합일론은 법치에 의한 외부적 규제와 덕치에 의한 내면적 외경을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려는 시도이다(*Chunqiu Fanlu*, Chapter 7).¹³⁾ 현대의 교권 보호법은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공공적 질서를 바로잡는 천도(天道)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법적 징벌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격적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중서의 천인상응론과 덕성론

본 장은 법가적 통치술을 유교적 세계관 내로 포섭한 동중서 유학의 독특성이 현대 법치 사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현재 교권 보호법은 교사의 법적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교육의 본질인 인격적 교감과 도덕적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동중서의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에 내재한 덕치(德治)의 본질을 재조명하여, 그것이 단순한 법적 강제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규범적 질서를 회복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동중서는 양(陽)을 중히 여기는 천도(天道)를 빌어 덕을 중히 하고 형을 가벼히 여기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법치와 덕교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였다(No, Jeong trans., 1997: 36). 여기서 통치 권력은 군주의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천도의 보편적 법칙성을 인간 사회에 구현하는 공공적 책무로 규정된다(*Chunqiu Fanlu*, Chapter 1).¹⁴⁾ 군주는 천명의 대리자로서 스스로를 엄격히 규율하며, 형벌의 위세가 아닌 덕화(德化)의 감화력을 통해 대중을 자발적 질서로 유도한다(*Chunqiu Fanlu*, Chapter 48).¹⁵⁾ 이는 법치를 시행하되 그 궁극적 지향점을 이상적 덕교와 공공성에 두는 동중서만의 독특한 사유 체계이다(*Chunqiu Fanlu*, Chapter 35).¹⁶⁾

13) 『春秋繁露』「減國上·第7」, “論罪源深淺, 定法誅, 然後絕屬之分別矣. 立義定尊卑之序, 而後君臣之職明矣.”

14) 『春秋繁露』「楚莊王·第1」, “孝子之心, 三年不當, 而踰年即位者, 與天數俱終始也, 此非以君隨天邪, 故屈民而伸君, 而屈君而伸天, 春秋之大義也.”

15) 『春秋繁露』「陰陽終始·第48」, “故聖人多其愛, 而少其嚴, 厚其德, 而簡其刑, 以此配天.”

16) 『春秋繁露』「深察名號·第35」, “受命之君, 天意之所予也.”

동중서에게 덕치는 군주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천과 인이 같은 기(氣)를 공유한다는 존재론적 유대감에 기초한다(*Chunqiu Fanlu*, Chapter 55).¹⁷⁾ 동중서에 의하면 덕화는 잘못까지 포용하는 관대함이 아니며 그 보조 수단이 형벌이다(*Chunqiu Fanlu*, Chapter 41).¹⁸⁾ 천이 양(陽)에 가까이하고 음(陰)을 멀리한다. 이처럼 양이 고귀하고 음이 비천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천(자연)의 형벌에 따른 것이다(*Chunqiu Fanlu*, Chapter 41).¹⁹⁾

사람에게 봄의 기가 없으면, 어떻게 두루 사랑하고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가을의 기가 없다면, 어떻게 엄격성을 내세워 공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여름의 기가 없다면,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하여 생을 즐길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겨울의 기가 없다면, 어떻게 사자를 슬퍼하고 상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 이에 천과 사람은 서로 상응하는 성질의 기를 가져 부합하는 부류다(*Chunqiu Fanlu*, Chapter 41).²⁰⁾

사계절의 순환과 인간의 정감이 상응하듯, 지도자(교사)가 먼저 공경과 사랑의 본보기를 보일 때 피치자(학생)는 외적인 강제 없이도 자발적인 외경심을 회복하게 된다(*Chunqiu Fanlu*, Chapter 62).²¹⁾ 참된 교화는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지도자의 자율적 수양과 예(禮)의 실천은 법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Chunqiu Fanlu*, Chapter 41).²²⁾

동중서의 덕성론은 공맹(孔孟)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분석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공맹이 심신(心身)을 기준으로 인의를 논했다면, 동중서는 자타(自他)를 기준으로 인(仁)은 타자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外)으로, 의(義)는 자신을 다스리는 엄격한 규범(內)으로 재편하였다. 교사는 의(義)를 통해 스스로를 부단히 절제하고, 인(仁)을 통해 학생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실천적 귀감이 되어야 한다(*Chunqiu Fanlu*, Chapter 3).²³⁾ 이러한 내적 자율성이 전제될 때, 교사의 권위는 수직적 압제가 아닌 공동체의 이상을 실천하는 공공적 권위로 승인될 수 있다(*Chunqiu Fanlu*, Chapter 35).²⁴⁾

17) 『春秋繁露』『四時之副·第55』, “慶賞罰刑異事, 而同功, 皆王者之所以成德也, 慶賞罰刑與春夏秋冬以類相應也.”

18)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刑者, 德之奉, 陰者, 陽之助也.”

19)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其不得當陽而當陽者臣子, 陽者君父是也 ... 陽貴而陰賤 天之刑也.”

20)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人無春氣, 何以博愛而容衆, 人無秋氣, 何以立嚴而成功, 人無夏氣, 何以盛養而樂生, 人無冬氣, 何以哀死而恤喪, ... 人亦有春秋冬夏之氣者, 合類之謂也.”

21) 『春秋繁露』『治亂五行·第62』, “故王者, 爲民治, 則不可以不明準繩, 不可以不正. ... 恭作肅言王誠能內有恭敬之姿, 而天下莫不肅矣.”

22)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百姓不安, 則力其孝弟. 孝弟者所以安百姓也. 力者, 勉行之身以化之. ... 躬親職此於上, 而萬民聽生善於下矣.”

23) 『春秋繁露』『竹林·第3』, “正也者, 正於天之爲人性命也, 天之爲人性命, 使行仁義而羞可恥, 非若鳥獸然, 苟爲生苟爲利而已.”

동중서의 체계는 결코 일방적인 수직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는 군주가 예(禮)를 잃고 천도를 어길 때 발생하는 재이(災異)를 통해 권력의 오용을 경고한다(*Chunqiu Fanlu*, Chapter 31).²⁵⁾ 만약 군주가 신하를 대우할 때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면, 나무(목재)를 굽게도 곧게도 하지 못해 [그릇 등을 만들지 못하고] 여름에는 폭풍이 많이 불게 된다(*Chunqiu Fanlu*, Chapter 62).²⁶⁾ 만약 군주(교사)가 신하(학생)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조화는 붕괴된다. 특히 동중서는 대학(大學)을 통한 교육과 경전 연구를 강조하며, 공공성을 체득한 대중이 군주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할 수 있는 주체적 근거를 마련하였다(Olberding, 2014: 306-307). 공자는 너그러워야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공손해야 업신여겨지지 않음을 강조한다(*Lunyu*, Bai).²⁷⁾ 동중서 역시 인함을 타인에게 미칠 것을 강조한다(*Chunqiu Fanlu*, Chapter 27).²⁸⁾ 그리고 그는 인(仁)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본다(*Lunyu*, YanYuan).²⁹⁾ 참된 교화는 권위의 독점이 아니라 공적 이성의 공유이며, 이를 통해 학생 역시 교사가 공공성을 일탈할 때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역동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동중서 유학은 법적 강제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 감화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역설한다(*Zizhi Tongjian*, HanJiJiu).³⁰⁾ 교사는 양의 역할로서 도덕적 본보기를 보이고, 학생은 이에 응답하여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동중서가 제시한 정교(政敎) 조화의 현대적 함의이다(*Chunqiu Fanlu*, Chapter 48; 41).³¹⁾³²⁾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예(禮)와 덕치로 보완하려는 그의 의도는 사법적 대응에 함몰된 현대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윤리적 경로를 제공한다(*Chunqiu Fanlu*, Chapter 41).³³⁾

24) 『春秋繁露』『深察名號·第35』, “天人之際合而爲一, 同而通理, 動而相益, 順而相受謂之德道.”

25) 『春秋繁露』『身之養重於義·第31』, “今不示顯德行, 民闇於義不能, 照迷於道不能解, 因欲大嚴憎以必正之直殘賊..”

26) 『春秋繁露』『治亂五行·第62』, “王者與臣無禮貌不肅敬, 則木不曲直, 而夏多暴風.”

27) 『論語』『八佾』, “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

28) 『春秋繁露』『度制·第27』, “故曰, 仁者, 人也, 義者, 我也, 此之謂也. 君子求仁義之別, 以紀人我之間, 然後辨乎內外之分, 而著於順逆之處也.”

29) 『論語』『顏淵』,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30) 『資治通鑑』『漢紀9』, “董仲舒少治春秋孝景時爲博士, 進退容止, 非禮不行, 學者皆師尊之.”

31) 『春秋繁露』『陰陽終始·第48』, “凡物必有合, 合必有上, 必有下, ... 君兼於臣臣兼於君, ... 陰道無所獨行, 其始也不得專起, 其終也不得分功有, 所兼之義是, 故臣兼功於君子兼功.”

32)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故君民者, 貴孝弟而好禮義, 重仁廉而輕財利, 躬親職此於上, 而萬民聽生善於下矣, 故曰先王見教之可以化民也, 此之謂也.”

33) 『春秋繁露』『爲人者天·第41』, “天地之數, 不能獨, 以寒暑成歲, 必有春夏秋冬, 聖人之道, 不能獨, 以威勢成政, 必有教化, 故曰, 先之以博愛教以仁也.”

III. 동중서의 공공성 담론에 기초한 현대 교권 회복 방안

동중서의 천인합일론은 천(天)을 형이상학적 자연법의 근거로 삼아, 보편적 공공원리에 따른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할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리프만(Lippmann, 1955: 78-79)은 고대부터 서양 사회를 지탱해 온 자연법(natural law)이 대중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퇴장하면서 공공 질서(public order)가 무력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중서의 천론을 재탐색하는 것은 보편적 공공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공적 이성 유교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 민주주의의 개방성 및 책임성과 결합한다. 유교적 시민들에게 공적 이성은 그들의 마음의 습관, 즉 유교적 관습, 도덕 감정, 예의범절, 관행을 서구에서 유래한 법적 권리와 자유와 조화시켜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Kim, 2015: 197). 이를 통해 강제성을 띤 법적 위계는 일방적 지배의 명분이 아니라 상호 예우를 보장하는 공적 절차로 치환된다.

현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통치권의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다. 전통 유학에서 군주를 통치권자로만 인식하고 주권은 민(民)에게 있다고 규정한 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국권 이론과 상통한다(Lee, 2004: 333). 즉,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되나 통치권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행사되듯, 교실 내 교사의 권위 역시 교육 공동체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정당한 통치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동중서의 천(天)은 신(神)·만물의 근본·도덕·자연·의인화 등 복합적 의미를 지닌 공공원리의 상징이다(Lee, 2004: 184; Jin, 2019: 5-6). 동중서가 천을 신격화하여 봉건 질서를 구축한 것은 역설적으로 통치 권력이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었다(Seo, 1976: 329; Park, 1999: 290-291). 따라서 현대의 교사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공원리에 부합하는 천의 원칙을 수행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교권의 회복은 과거의 강압적 훈육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학교 갈등의 주요 원인은 대개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Tirri & Puolimatka, 2000: 157). 동중서가 법가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유가적 덕교를 견지했듯, 현대 교권은 절차적 투명성(transparency)과 설명 가능성에 의해 그 합리성을 보장받아야 한다(Schmidt & Wood, 2019: 737). 특히 우리는 죄악을 엄단하는 법 집행 과정 중에서도 사안의 맥락과 양태에 따라 작은 허물을 사면함으로써 도덕적 감화를 완성하고 일상에서 허물 자체가 종식되게 유도해야 한다는 동중서의 논의에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Chunqiu Fanlu, Chapter 14).³⁴⁾ 법은 도덕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 교육의 본질은 인간적 교화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에 우리는 투명한 공적 절차를

34) 『春秋繁露』『服制象』第14, “故始言大惡殺君亡國, 終言赦小過, 是亦始於麤粗, 終於精微, 教化流行, 德澤大洽, 天下之人, 人有士君子之行而少過矣, 亦譏二名之意也.”

통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이라는 법치적 기반을 엄정히 추진하되, 그 규범적 경계를 엄격히 들이대기보다는 현장의 맥락에 맞는 용서와 포용의 덕치를 조화시킴으로써 교실 안에서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 가르침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성 유교의 관점은 봉건적 위계를 시민윤리로 전환해 정치 권력의 강압성과 집단적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Kim, 2015: 194). 예컨대 교실 내 휴연 금지와 같은 규범을 수립해서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때, 학생의 참여권과 절차적 정의를 보장함으로써 규범 준수를 처벌 회피가 아닌 공동선에 대한 도덕적 공감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Chunqiu Fanlu, Chapter 21).³⁵⁾ 이는 교사가 단호한 지도(규범)와 배려(지원)를 조화롭게 보여줄 때 학생이 신뢰를 바탕으로 규율을 따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Gregory et al., 2010: 483).

교권의 완전한 회복은 법적 방어권을 넘어 교육 주체 간의 인격적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 동중서는 귀한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는 때 국가가 태평해진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교사가 먼저 학생의 인격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술선수법의 자세를 보일 때, 학생으로부터 능동적인 존경을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굿맨(Goodman, 2009: 13-15)의 지적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respect)을 일방적 복종(submission)과 구분하고, 교사가 도덕적 모범으로서 학생과 거리를 좁힐 때 학습은 비로소 활기를 띈다. 또한 유교 윤리를 새로운 사회 상황에 대한 내적 수정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공존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재적용해야 한다(Chan, 2002: 304; Zhao, 2018: 1106).

동중서 사상이 시사하는 현대적 교권 회복 방안은 공공성에 기반한 법적 보호와 도덕적 귀감에 의한 자발적 존경의 균형에 있다. 존중과 공감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도덕적 영역에서의 술선수법과 법적 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이다(Malti & Zhang, 2020: 65). 동중서가 보편 원칙[常道]과 특수 상황[變道]의 조화를 논했듯, 현대 교육 현장 역시 공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학생의 개별적 상황을 포용하는 공적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법적 제도 마련과 교사의 덕교 활동이 상보적으로 결합될 때, 교권은 비로소 공적 정당성과 도덕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 현대적 전문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동중서의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을 단순한 전근대적 정교일치의 교리가 아닌, 현

35) 『春秋繁露』『考功名·第21』, “治身者務執虛靜以致精, 治國者務盡卑謙以致賢, 能致精, 則合明而壽能致賢, 則德澤洽而國太平.”

대 민주주의의 공공성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원리로 재해석하였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직면한 교권 침해의 위기는 제도적 방어권의 부재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내의 도덕적 자율성이 고갈된 데서 기인한다. 이에 본고는 법가적 정당성에 근거한 제도적 강제성과 유가적 감화에 기초한 도덕적 자발성이라는 이중 경로를 교권 회복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 교권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 제정 위주의 대응은 외적인 준수는 이끌어낼 수 있으나 교사에 대한 내면적 존경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동중서 사상이 지닌 독특성은 법가의 형벌 원리를 수용하여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현실적 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그 본질을 유가의 덕교(德敎)에 두어 자율적 도덕성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덕주형보(德主刑輔)의 현대적 적용은 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공공적 질서를 수립하는 도덕적 귀감으로 격상시킨다. 교사가 먼저 학생을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관대함을 실천하는 선제적 덕화(德化)를 보일 때 학생은 비로소 처벌의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원만한 관계가 공격성 위험을 낮춘다는 현대 교육심리학의 연구 결과(Rucinski et al., 2017: 992)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동중서의 봉건적 위계를 현대의 공적 이성 틀로 전환할 것을 역설한다. 과거의 수직적 가부장주의는 이제 민주적 책임과 참여적 역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는 신분적 우위가 아니라 전문성과 윤리, 그리고 공적 책무성에 근거한 정당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권의 행사는 절차적 투명성, 정보 공개, 이의제기권 보장과 같은 현대적 견제 장치와 결합될 때 비로소 그 공공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는 교권의 강화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교육 공동체의 윤리적 환경을 건인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동중서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 주는 최종적인 교육적 시사점은 구조(법·규범)와 지원(돌봄)의 유기적 결합에 있다. 본보기를 통한 감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례함과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가적 차원의 엄정한 제도적 장치가 수단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과 도덕적 공감의 형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동중서 사상은 우리에게 법적 영역에서의 권리 존중과 도덕적 영역에서의 인격적 존경은 분리될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환기한다. 교사는 공공 원리에 따라 단호한 지도를 행하되 학생의 준엄성을 먼저 배려하는 관대한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보적 노력이 경주될 때, 교실은 법적 갈등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상호 신뢰와 공적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교육의 장(場)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Primary Sources]

春秋繁露. *Chunqiu fanlu*.

資治通鑑. *Zizhi tongjian*.

漢書. *Hanshu*.

四書大全. *Sishudaquan*.

論語. *Lunyu*.

春秋. *Chunqiu*.

[Secondary Sources]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won, Y. S. (2002).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 Seoul: Bubmunsa.

이춘식 (2014).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Lee, C. S. (2014). *The Roots and Ideology of Chinese Hegemony*.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이상익 (2004).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서울: 심산. (Translated in English) Lee, S. I. (2004). *Confucian Tradition and Liberal Democracy*. Seoul: Simsan.

徐復觀 (1976). 兩漢思想史(卷2). 臺北: 學生書局. (Translated in English) Hsu, F. K. (1976). *History of Thought in the Han Dynasties* (Vol. 2). Taipei: Student Book.

陳來 (2019). 儒學發展與進化-陳來講談錄. 台北: 崧博文華. (Translated in English) Chen, L. (2019).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Confucianism: Lectures by Chen Lai*. Taipei: Songbo Culture.

전제상 (2024).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 한국교육개발원. 제 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 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1-111.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2024).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Rights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t al.. *The 1st Forum on the Recovery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Jincheon: KEDI.

이돈희 (1991). “교권 사건의 분석”. 대한교육연합회 편. 『교권사건판례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1991). Analysis of Educational Authority Cases. Korean Federation of Education Associations (ed.). *Casebook of Educational Authority*

- Cases. Seoul: Korean Federation of Education Associations.
- 勞思光. 中國哲學史(漢唐篇). 정인재 옮김 (1997). 중국철학사 한당편. 서울: 탐구당. (Translated in English) Lao, Siguang. Zhongguo Zhexue Shi: Han Tang. Jeong, I. J. (trans.) (1997).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Han and Tang Dynasties*. Seoul: Tamgudang.
- 董仲舒. 春秋繁露. 신정근 옮김 (2006). 춘추-역사 해석학: 동중서의 춘추변로. 파주: 태학사. (Translated in English) Dong, Zhongshu. Chunqiu Fanlu. Shin, J. G. (trans.) (2006). *Chunqiu-Historical Hermeneutics: Dong Zhongshu's Chunqiu Fanlu*. Paju: Taehaksa.
- Bai, Tondong (2013). An old Mandate for a New State: On Jiang Qing's Political Confucianism. Jiang, Qing (ed.). *A Confucian Constitutional Order: How China's Ancient Past Can shape Its Political Fu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 J. (2002). Moral Autonomy, Civil liberties, and 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52(3), 281-310.
- Goodman, J. (2009). Respect-due and Respect-earned: Negotiating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Ethics and Education*, 4, 17-3.
- Gregory, A., Cornell, D., Fan, X., Sheras, P., Shih, T.-H. & Huang, F. (2010). Authoritative School Discipline: High School Practices Associated with Low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2), 483-496.
- Kim, S. (2015). Public Reason Confucianism: A Constru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 187-200.
- Kim, M. K., Lee, S. S. & Eom, M. Y. (2016). A Study on Case Analysi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uthor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 Law*, 28(3), 1-24.
- Kim, S. R. (2017). Dong Zhongshu's Theory of the Unity of Heaven and Man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Journal of Toegyehak*, 30, 275-300.
- Park, S. H.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Man Unity and Subject-Object Opposition. *Korean-Germ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9(2), 279-295.
- Lee, S. S. (2004). Confucius-Mencius's "Affectivity" and Dong Zhongshu's "Qi". *Journal of East-West Philosophy*, 34, 171-190.
- Lippmann, W. (1955). *Essays in the public philosophy*.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 Malti, T., Peplak, J. & Zhang, L. (2020). The Development of Respec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5(3), 7-99.
- Olberding, G. (2014). Dong Zhongshu, a Confucian Heritage and the Chunqiu Fanlu. By Michael Loewe.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 207-210.
- Rucinski, C. L., Brown, J. L. & Downer, J. (2017). Teacher - Child Relationships, Classroom

- Climate,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0, 992-1004.
- Schmidt, V. & Wood, M. (2019). Conceptualizing throughput legitimacy: Procedural mechanisms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inclusiveness and openness in EU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97(4), 727-740.
- Tirri, K. & Puolimatka, T. (2000). Teacher Authority in Schools: A case study from Finland.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26, 157-165.
- Zhao, W. (2018). Historicizing tianrenheyi as correlative cosmology for rethinking education in modern China and beyon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51, 1106-1116.
- 교육부 (2025. 5. 13.).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Retrieved 2026. 5. 5., from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8735>
- 오마이뉴스 (2003. 5. 15.). 스승을 존경하는 이유, 더 많은 지혜의 샘물 때문이다. Retrieved 2026. 5. 5., fro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29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5. 3.).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Retrieved 2026. 5. 15., from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2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5.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Retrieved 2026. 2. 19.,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C%9D%98%EC%A7%80%EC%9C%84%ED%96%A5%EC%83%81%EB%B0%8F%EA%B5%90%EC%9C%A1%ED%99%9C%EB%8F%99%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 한국교육신문 (2025. 11. 10.). 무너진 존중과 신뢰 회복하려면. Retrieved 2026. 5. 15., from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577>